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복음으로 여는 유다서-

다니엘 6:19-23, 유다서 1:3-4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어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을 완전히 꺾고,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의 제자요, 주역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에게 이 살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램넛트 7명, 초대 교회성도들처럼 보호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나눌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 중 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야고보와 유다 또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직접 지켜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셔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유다서를 보면 사도 유다 또한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유다는 유다서를 통하여 처음에는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유다서의 기록내용을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를 지키는 역할이 컸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편지의 주제를 바꾼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와 부도덕한 삶으로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백신과 같은 성경이다. 유다가 살던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1장의 짧은 유다서 안에 20가지가 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는 아직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알고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1. 유다서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유다는 구약성경과 유대의 고문서(외경, 위경-에녹서 등)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1)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이비이단 ‘신천지’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신천지로 유인하고 있다. 그들은 사이비, 사기집단이다.

(2) 1장 4절 중간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타락의 시작이 술, 담배이다. 이것이 시작의 통로이다. 다음으로 음란과 다양한 중독에 빠지게 된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방탕과 육신적인 타락을 정당화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또 4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야이며,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이단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4) 유다는 1장 5절에서 출애굽과 광야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로 보건대 이 유다서 편지를 받은 1차 수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출애굽 후 광야생활을 하던 중에 원망과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5) 1장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에 대하여 예를 들고 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타락한 이유는 불순종과 교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있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한다.

(6) 사도 유다는 1장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사람들의 타락에 대하여 예를 들고 있다. 유다서 1장 7절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당시 교회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할 뿐 아니라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1장 8절에 보면 유다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유다서 1장 8절이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신비주의자들의 특성이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혔고 권위를 업신여겼으며 영광을 비방하였다.

(7)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본능적으로 비방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 체질이 부정적이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다는 천사 미가엘도 마귀와 변론할 때 비방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유대 고문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또한 1장 11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인은 형제를 죽이고 복음 없는 틀린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

(8)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발람 선지자는 돈을 받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이 저주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9)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라는 당을 짓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

(10) 또한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단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몰래하면서도 뻔뻔하게 기탄없이 함께 성찬도 같이 하였다.

(11)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영적인 지도자와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13) 19절에 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지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교회 안에서 발생된 23가지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였지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유다는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할 절대미션을 주면서 유다서 편지를 끝내고 있다.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다. 특히 중에서 20절과 21절은 유다서의 중요한 요점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활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활히 여기라'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을 공활히 여기고,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잘못 행동하면 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을 공활히 여겨야 한다.

2.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들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램넛트, 그루터기,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 미션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은 우리교단, 우리교회에 주신 미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은 '언약적 7대 흐름'이다. 이것을 영어로 '7가지 메인 스트림'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 7가지 언약적 흐름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훈련 받았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1) 7대 언약적 흐름의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 권세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를 얻게 된다. 3가지 신분은 성령내주, 성령인도, 기도응답이다.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4가지 권세는 사탄결박권, 천사동원권, 천국시민권, 세계복음화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군천사를 동원해주시고 흑암을 결박하고 인도해 주신다.

(2) 두 번째 메인스트림은 10가지 비밀이다.

① 첫 번째 비밀은 독립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② 두 번째 비밀은 사실이다.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사실을 보아야 한다. 사실, 진실, 영적사실이 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은 사실이다. 요셉이 집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 감옥에 들어간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영적사실이 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셔서 결국에는 국무총리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편집, 계획, 디자인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영적사실이다.

③ 세 번째 비밀은 역발상이다.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가짜인 현실에 속지 않고 진짜인 반대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④ 네 번째 비밀은 시너지이다.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더 큰 응답으로 돌아온다.

⑤ 다음은 위기이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응답과 해답의 기회를 보게 된다.

⑥ 여섯 번째 무경쟁이다. 완전복음 안에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다.

⑦ 다음은 재창조이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 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게 된다.

⑧ 서밋이다. 영적서밋이 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향해 가게 된다.

⑨ Nobody 현장이다. Nobody를 살릴 영적컨텐츠를 찾으면 Everybody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

⑩ 열 번째 비밀은 절대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절대적인 것을 주실 것이다. 기도만 하면 된다.

(3) 세 번째는 10가지 발판이다. 이 10가지 발판은 우리교단의 신학이며 신앙고백이다.

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역대상 29:10-12)

②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엡 1:3-10)이다.

③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요 14:13-14, 16-17, 26-27)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④ 우리 신앙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딤후 3:14-17)

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

⑥ 진정한 선교지(창 39:2-6)는 나의 현장이다.

⑦ 하나님은 생사회복의 주관자(시 139:1-10)이시다.(하나님의 통치)

⑧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⑨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내세(계 21:8, 계 22:1-5)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⑩ 천국에 가면 성도와 전도자들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전도자의 상급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발판 10가지이다.

(4) 네 번째는 언약적 흐름은 5가지 확신이다. 확신은 더 빠르게 더 크게 응답받는 비결이다. 이 5가지 확신은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다. 그런데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5) 다섯 번째는 9가지 포인트이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9가지 승리의 포인트를 나의 체질로 만들어야 한다. 그 9가지 포인트는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이다.

(6) 여섯 번째 메인 흐름은 62가지 다락방전도운동의 흐름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다락방전도운동을 지속하면 62가지는 따라오게 된다.

(7) 일곱 번째는 교회이다. 교회는 왜 중요할까? 교회는 하나님의 LVT NPO 즉, Leverage(지렛대), Vessel(그릇), Transmission(전달, 소통), Nobody(Masterpiece, 작품), Platform(중심), Outsourcing(위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핵심은 예배이고 예배의 핵심은 강단메시지이다. 이 7대 흐름 속에 있을 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수 있는 전도체자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단사상에 빠지거나, 부도덕한 삶을 정당화할 수 없고, 새롭게 거듭나서 복음, 오직 복음을 뛰어넘어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향해 도전하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절대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참된 복음과 참된 삶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24시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문제와 사건과 일 앞에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해 보시기를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237나라 일천만 제자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가문과 후대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주님의 몸된 성전과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 복음의 원스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복의 근원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